

碩士學位論文

谷崎潤一郎 文學에 나타난 女性崇拜 世界觀

指導教授 姜 泰 國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玄 采 才

2002年 8月

谷崎潤一郎 文學에 나타난 女性崇拜 世界觀

指導教授 姜 泰 國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2年 5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玄采才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7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谷崎潤一郎 文學에 나타난 女性崇拜 世界觀

玄采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姜 泰 國

1910년(明治43), 동인지 「新思潮」에 발표한 소설 『刺青』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로부터 절찬을 받고 문단에 등장한 다니자키는 1965년 『七十九歳の春』의 절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개성과 자질을 믿어 문학가로써의 생활을 충실히 하였다. 다니자키는 생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여성미를 찬미하는 <여성숭배>의 세계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문학세계에는 여성이, 특히 아름다운 모성이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다니자키 문학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다니자키의 성장과정과 아름다운 <어머니>가 다니자키 문학의 본질에 미친 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니자키가 태어나 자란 동경 시따마치 니혼바시(下町日本橋)는 그의 수많은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다니자키의 정신형성에, 특히 여성숭배사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다니자키의 아름다운 <어머니>는 그의 문학의 모티브를 이루고 있다. 다니자키에 있어 <어머니>는 유년시기에 보았던, 젊고 아름다운 <영원한 여성>으로써 늘 존재해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모친사상계열의 작품 『母を恋ふる記』, 『吉野葛』, 『小將滋幹の母』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작품 속의 어머니는 항상 젊고 아름다우며 현애로운 이미지로써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다니자키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름다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두 사람만의 세계를 간직하고자 하는 그리움에서 나온 것이다.

다니자키 문학의 상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발-페티시즘>이다. <발-페티시즘>도 유년기에 본 어머니의 희고 작은 아름다운 발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다니자키 문학에 있어서 여성의 발은, 독립적인 자태와 표정을 가지고 여성과 대체하여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위에 군림하고 있다. 다니자키는 이와 같은 여성숭배의 작품을 쓰면서 특히 미적인 가치를 중요시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였다. 이런 여성숭배 정신은 처녀작 『刺青』, 중기의 『痴人の愛』로 대표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헌신을 다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남성의 <마조히즘>이다. 다니자키의 문학세계는 독특한 마조히즘을 근본으로 해서 형성된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다니자키의 문학세계의 중심에 놓고, 영원한 여성의 미를 그의 독특한 필지와 환상적인 구도와 기교로써 마음껏 묘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자키는 <여성숭배>를 주제로 하여 일관되게 작품 속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미를 감성적으로 표현한 작가였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다니자키 문학에 그려진 어머니의 의미	6
III. 다니타키 문학에 나타난 여성송배 세계관	13
1) 페티시즘	13
2) 마조히즘	26
V. 결 론	40
참 고 문 헌	43
Abstract	46



I. 서 론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 1886~1965.이하 다니자키라 칭한다)는 明治43年(1910)의 제2차 「新思潮」의 창간에서부터, 昭和40年(1965)의 「にくまれ口」¹⁾ 「七十九歳の春」²⁾에 이르기까지, 전후 55년 간의 긴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것은 明治·大正·昭和의 삼대를, 그 시기의 문단의 조류에 흐르는 일 없이, 자기 고유의 주제를 추구하여 독자적 길을 걸어온 55년이였다.

다니자키의 재능이 탁월한 것은, 그가 문단에 나타날 때부터 널리 인정되고 있었지만, 최초로 다니자키를 추천한 나가이 가후(永井荷風)³⁾는, 초기의 작품의 특색을, 첫째 「육체적공포로부터 생기는 신비유현」, 둘째 「완전히 도회적 것」, 셋째 「문장이 완전한 것」의 세 가지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니자키에 대해서는 비판은 악마주의, 탐미주의, 변태성욕적, 고전주의 등으로 변화하였지만, 다니자키 비평의 결정적인 말이 된 것은, 大正13년에 사토 하루오(佐藤春夫)가 「秋風一夕話」⁴⁾에서 내린 「사상없는 예술가」라고 말하는 평언이였다. 이후

1) 婦人公論, 絶筆

2) 中央公論, 絶筆

3) 소설가(1879~1959). 고등상업부속고등학교 清語과 중퇴.문학적 관심은 연극과 소설을 좋아하는 어머니로부터 전해짐. 졸라의 사상을 가장 정당하게 이해하여 이를 일본의 토양에 이식하기를 시도한 작가. 미국과 프랑스에 유학한 후, 『아메리카이야기(あめりか物語)』, 『프랑스이야기(フランス物語)』를 발표.

에도(江戸)적인 정서가 흐르는 풍속소설 『스미다 강(すみだ川)』를 발표, 자연주의 전성기의 문단에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탐미파의 대표적 인물로 인정받음. 문예잡지 「三田文学」를 창간하여 자연주의의 『早稲田文学』에 대립하였다.

『近代文學事典』, 近代作家研究事典刊行會, 桜木風社, 1983년

4) 「隨筆」, 1924년 10월~11월

다니자키는, 미적 감각에 풍부하고 사상이 없는 작가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았다.

그러나 다니자키의 『母を恋ふる記』⁵⁾라든가 『細雪』⁶⁾와 같이, 미의 이미지를 쫓는 서정적 또는 서사적인 것도 있고, 또 <性>이나 <美>를 그리지 않고, 경제관념의 변화에 의한 질서붕괴의 두려움을 그린 소설로서 『小さな王國』⁷⁾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작품은 <美> 또는 <性>의 힘에 의한 질서의 붕괴의 공포 또는 감동을 그리고 있다. 즉 『刺青』⁸⁾ 『惡魔』⁹⁾ 『愛すればこそ』¹⁰⁾ 『痴人の愛』¹¹⁾ 『卍』¹²⁾ 『春琴抄』¹³⁾ 『武州公秘話』¹⁴⁾ 『少將滋幹の母』¹⁵⁾ 『鍵』¹⁶⁾ 등이 그것이다. 그는 고민하는 인간을 그리기를 계속한 작가로 도덕 또는 혁명의식을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과의 합일을 바라는 많은 求道적인 일본의 작가군으로부터 그를 구별하고 있다.

다니자키는 처녀작 『刺青』에서 『癡癡老人日記』¹⁷⁾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性>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다니자키는 변함 없는 문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오직 자신의 취향에 맞는 테마를 추구하여 여성의 관능미를 비롯한 도착적이고 이상한 제재로 미를 철저히 묘사

5) 「大阪毎日新聞」「東京日日新聞」, 1919년 1월

6) 「中央公論」, 1943년

7) 「中外」 1918년 8월

8) 短篇小説. 1910년 11월 「신사조」에 발표. 처녀작.

9) 「中央公論」, 1912년 2월

10) 「改造」, 1921년

11) 「大阪朝日新聞」, 1924년 3월 20일~6월 14일까지 87회 연재소설.

12) 長篇小説, 「改造」 1928년 3월~1930년 4월 발표.

13) 「中央公論」, 1933년

14) 雑誌「新青年」, 昭和6年 10月号~翌年 11月号

15) 「毎日新聞」, 1949년 11월

16) 長篇小説, 「中央公論」, 1961년 3월~7월.

17) 中央公論, 1961년 11월 발표, 1963년 1월 「毎日芸術大賞」 수상.

하였다. 이처럼 여성을 통하여 여체의미를 찬양하고, 자기 내부의 관능적 취향에 몰입하는 다니자키 문학의 미의식은 인간의 쾌락을 죄악시한 봉건적 도덕관이 여전히 남아있던 그 당시로서는 대담한 문학혁신이 아닐 수 없다.

다니자키가 살았던 근대라는 시대는 <性>이라는 문제가 아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시대였지만 다니자키는 시대를 앞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감성으로 개성 있는 <性>문학세계를 그려냈다. 예를 들면, 민간 내부 심층에 존재하는 마조히즘적 심리의 전개를 그린 「饒太郎」¹⁸⁾와 「痴人の愛」, 여성의 심리를 다룬 「靛」, 노인의 성을 다룬 「鍵」, 「蓼喰」¹⁹⁾「ふ虫」²⁰⁾ 등이 있다. 다니자키는 당시 사회에서 중심부에 위치하는 남성들의 성의 문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술가·장애자·여성·노인 등을 즐겨 작품에 등장시켰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性>을 다룬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숭배, 여체찬미, 모성에 대한 동경 등으로 집약된다.

다니자키는 자신의 미적 관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의미를 아직 자각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 남자가 그것을 눈뜨게 하고, 그미를 의식하게 된 여자는,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게 해 준 남자를 가지고 놀고, 결국에는 그를 파멸시켜 간다. 그것이미를 추구하고, 미에 빠지기를 원하는 남자의 숙명이라고 다니자키는 말하는 것이다.」

「自分の美をまだ自覺していない女性に男がそれを目ざめさせ、そ

18) 中央公論, 1914년 9월

19) 마디풀과의 일년초(草). 잎은 피침형, 줄기는 60cm. 여름에는 흰 꽃이 뿜. 잎과 줄기는 깃이겨 물에 풀어서 고기를 잡는 데 쓰며, 매우므로 조미료로도 쓰임. 수료(水蓼)

20) 「大阪毎日新聞」「東京日日新聞」, 1929년 2월~1930년 6월

の美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女は、さまざまな魅力をもって、それを意識させた男をもてあそび、ついにはかれを破滅させていく。それが美を追求し、美に溺れることを欲する男の宿命であると谷崎はいうのである。」⁴⁾

다니자키 문학의 여성적 세계에 나타난 미적 관념은 여성의 신비, 여성의 관능, 여성의 악마적 성향 등, 여성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니자키 특유의 여성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한 작가의 문학세계를 살펴보면 있어, 그 작가의 실생활은 작품세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본다. 다니자키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그의 유년시절·성장환경은 작품세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니자키는 1886년(明治19) 7월 24일에, 동경의 니혼바시(日本橋)에서 태어났다. 에도(江戸)정서의 자취를 가진 시따마치(下町)에서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은, 다니자키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린 시절 봤던 가부키(歌舞伎)무대는, 인간의 애증을 가져오는 현란한 참극의 매력을, 다니자키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다니자키에게 많은 감회를 주었던 가부키는 그의 문학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다니자키 문학에 있어서 구원의 여인으로 어머니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의 의미와 그 의의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우선 다니자키의 문학에 모티브가 되고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숭배와 탐미로 함축될 수 있는 다니자키 문학의 여성관 성립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그 여성관 성립의 배경을 다니자키의 어머니

4) 谷崎潤一郎, 「愛と情熱の主人公たち」, 『痴人の愛』, 有信堂, 1972년

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니자키가 추구하고 있는 여성숭배 세계관을 페티시즘(fetishism)⁵⁾, 마조히즘(masochism)⁶⁾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
- 5) fetishism : 1)<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숭배하는 일. 이 물건을 페티시(fetish)라고 한다. 서아프리카의 미개인의 관습에서 이 말이 일반적으로 생겼다. 특히 이 말은 애니미즘(animism) 등과 구별하여, <부적>과 같이 어느 정도 가공하여 가지고 다닐 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태양이나, 달의 숭배, 기타의 것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다. 2)물체(物體):여성의 속옷이나 양말, 그밖에도 이성과의 관계가 불명한 것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는 이상(異常)성욕의 일종. 정신분석에 의하면, 페티시즘은 계속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떤 한 질병단위에 대한 고찰을 훨씬 초월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페티시즘은 정상의 성생활에도 인정되어지는 것에 주목 할만하다. (프로이트 『性慾論三編』 1905)
精神分析事典, R·シェママ, 弘文堂, 1995.
- 6) masochism : 피학대음란증(被虐待淫亂症). 이성으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적 쾌락을 얻는 이상(異常)·도착(倒錯)·변태성의 하나로 새디즘(sadisme)에 대응한다. 이러한 환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쓴 오스트리아의 작가 마조흐(S.Masoch)의 이름을 따서 정신의학자인 크라프트 에빙(R.M.Kraft-Ebing) 이 붙인 말이다. (精神分析事典, R·シェママ, 弘文堂, 1995.)

II. 다니자키 문학에 그려진 어머니의 의미

다니자키의 작품중에는 「母を恋ふる記」(1919), 「吉野葛」(1931)⁷⁾, 「小將滋幹の母」(1949), 「幼少時代」⁸⁾ 등 모성이 군림하는 작품이 많다.

이는 다니자키 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여성숭배사상을 고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다니자키의 생애, 특히 문학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이다. 다니자키의 작품에 나오는 <어머니>의 공통된 이미지는,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라는 점이다.

다니자키의 어머니인 오세키(お関)는, 一代에 재산을 탕진한 조부 쿠에몬(久右衛門)의 셋째 딸로 실제로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한다. 살결은 희고 피부는 부드러우며, 부유한 가정환경 때문에 상당한 교육을 받아 교양도 있었다. 다니자키는 그런 어머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곧잘, 어머니가 미인으로 보이는 것은 자식의 눈으로 봐서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기 어머니의 얼굴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대퇴부의 살결이 희고 고았기 때문에, 함께 목욕을 하면 나도 모르게 흠칫하고 놀라다시 본 적도 자주 있었다.」

「私はよく、母が美人に見えるのは子の慾目ではないかしらん、誰での自分の母の顔は綺麗に見えるのではなからうか、とさう思ひし

7) 「中央公論」, 1931년 1월

8) 「文藝春秋」, 1955년 4월호~1956년 3월호

た。顔ばかりでなく、大腿部の辺の肌が素晴らしく白く肌理が細か
だったので、一緒に風呂に入ってる思はずハッとして見直したこ
ともたびたびであった。じつと見てみると白さが一層際立って来る
感じがしたが、あ 云ふ白さは今の人の白さとは違ふ。」⁹⁾

이러한 어머니는 다니자키에게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다니자키 문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다니자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운 존재뿐만이 아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에 대한 동경은 관념적인 <여성숭배>로 연결되
는 <영원한 어머니>로의 동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어머니>
로의 <여성숭배>가 다니자키 문학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물론 다니자키 특유의 <여성숭배 사상>때문만이 아니라, 그리
스도교의 성모마리아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1923년(大正12)에 「祖父の隠居所」의 마리아상에 대한 기억과, 『幼少
時代』(1955)에서, 본가인 다니자키 인쇄소의 토장에 숨어 들어가 바
라본 성모상에 관한 것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에피소드는 거의
실체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마리아상에서는
「白」 이미지가 탐구되고, 최후에는 마리아상이 「고귀한 『白』의 본
체」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 경우의 「白」의 이미지는 영원한 여성에
의 고귀한 것의 숭배를 나타낸다.

반면에, 다니자키의 조부는 기독교의 니콜라이파(동방정통교회)교도
였는데, 이 무렵의 일본은 아직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한 형태

9) 『幼少時代』- 父と母と- 「文藝春秋」1955년 4월호~56년 3월호

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부의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취향은 다니자키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조부는 여자를 귀여워하고 남자는 싫어하여...」

「...祖父は女の子を可愛がって男の子を嫌ひ...」¹⁰⁾

또한, 페미니스트였던 조부¹¹⁾는 딸을 멀리 보내지 않고, 가게의 점장이었던 쿠라고로(倉五郎)를 사위로 맞아 분가를 시켰으나, 본래 주종관계가 부부관계로 꼬리를 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고 무능하여 집안은 점점 궁핍하여 가고, 쿠라고로는 오세키에게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이런 구도는 다니자키의 녀리에 인상 깊게 새겨져, 작품에서의 여성상위의 남녀관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되어 있다. 프로이드를 말할 필요도 없이, 남아의 모친에 대한 사랑이, 성애의 자각이전부터, 이성애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고금동서, 이성으로서의 어머니를 둘러싼 긍정적·부정적 감정은 문학의 큰 모티브가 되어 왔다.

그 중에서, 다니자키 문학에 있어서 어머니의 문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어 진 것은, 明治期에도 불구하고, 양친이 여성상위의 부부관계였다는 특수성에 있다.

다니자키의 작품 속에서 어머니 오세키(お關)의 모습은 항상 비현실적으로 취급되어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로만 존재한다. 어머니에의 이성애에 속하는 감정은 어머니의 사후에 짝이 트여, 작품화되었다. 다

10) 「私の一番古い記憶」 - 『幼少時代』

11) 『全集17』. 「幼年時代」, 中央公論社 1968, p.49

니자키가 32세인 해에 어머니는 54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어머니의 미화가 시작되어, 『母を恋ふる記』(1919)에서 더할 나위 없이 명확히 표현되었다.

「어머니, 어머니, 나예요, 준이치가 돌아왔어요.」(중략)

「너는 누구니? 네가 내 아들이니?」

내 쪽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저 늙은 연잎 소리보다도 더 메마르고 가늘었다.

「그럼요, 나는 엄마의 아들이예요. 아들 준이치가 돌아왔습니다.」

(中略)

「나는 벌써 오랜 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 아닌 모양이다. 내 아들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한길의 이 집 앞을 지나갈 거야. 나는 준이치라는 아들을 갖지 않았어.」

「아아, 그러세요. 당신은 이웃 할머니시군요.」

그리고 보니 과연 그 노파는 분명히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설마 아무리 나이가 드셨다 하더라도 나의 어머니는 아직 이렇게까지 늙지는 않았을 것이다.

「おかあさん,おかんあさん,私ですよ。潤一が歸って來たんですよ。」

(中略)

「お前は誰だったかね。お前は私の倅だったかね。」

私の方をふりむいてそう云った聲は、あの古沼の蓮の音よりももっとかれて徴かである。

「ええそうです,私はお母さんの倅です。倅の潤一が歸って來たんです。」

(中略)

「私は長い間,十年も二十年もこうして倅の歸るのを待っているんだが,しかしお前さんは私の倅ではないらしい。私の倅はもっと大きく

なっている筈だ。そうして今にこの街道のこの家の前を通る筈だ。
私は潤一なぞと云う子は持ったない」
「ああそうでしたか。あなたは餘所のお姉さんでしたか」
そう云われて見れば成程そのお姉さんは確かに私の母ではない。た
といどんなに落ちぶれたにしても、私のお母様はまだこんなに年を
取っては居ない筈である。12)

모친 사망 1년 후에 쓰인 이 작품은 다니자키 문학 중에서도 그 아
름다운 시정과 환몽적인 서정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실의 나
이 든 모친의 모습을 거부하고 유년시절의 젊고 아름다웠던 모친으로
치환시켜 놓은 작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니자키의 모친이 어떤 존재
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다니자키 문학의 한 특성을 이
루는 모성사모의 원형을 이루는 최초의 것으로, 후년의 「吉野葛」, 「小
將滋幹の母」, 「夢の浮橋」 등으로 연결된다.

다니자키에게 있어서 <美>는 <여성>·<악>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여성숭배의 충동은, 여성을 극도로 이상
화하는 상상력의 문제와 함께, 다니자키에게 있어서는 『母を恋ふる
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머니에의 숭배로도 연결되어 진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때문에 어머니가 젊고 아름다운 것은 당
연할지도 모른다고 까지 생각했다.
「아아 어머니, 어머니였습니다군요. 나는 아까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
어요.」

12) 谷崎潤一郎, 『母を恋ふる記』, 新潮社, 1991, p.306

「오오, 준이치야, 간신히 엄마를 알아주었느냐。」

어머니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를 꼭 껴안은 채 서 있었다. 나는 악착같이 껴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품에는 달콤한 젓가슴 향기가 따뜻하게 풍기고 있었다.

私はまだ小さな子供だ。だから母が此のくらゐ若くて美しいのは當り前かも知れない、と思った。

「ああお母さん、お母さんでしたか。私は先からお母さんを捜してゐたんです。」

「おお潤一や、やっとお母さんが分かったかい。分ってくれたかい。」

母は喜びにふへる聲でかう云った。さうして私をしつかりと抱きしめたまま立ちすくんだ。私も一生懸命に抱き附いて離れなかった。

母の懷には甘い乳房の匂が暖かく籠ってゐた。13)

모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있어서, 대단히 무서운 모친인 경우와, 그리고 자애로 가득한 모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 첫째의 무서운 어머니의 경우를 잔혹한 어머니라고 하고, 다른 한 경우의 어머니를 젓먹이는 어머니라고 하자.

그런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면, 다니자키의 작품에 나오는 어머니는 잔혹한 어머니의 면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전이되는 것은 <악녀>의 여성으로, 즉 마조히스트로 하여 다니자키의 문학에서 대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친의 감미로운 회상만이, 소위 모성 사모의 계열의 작품 속에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항상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

13) 谷崎潤一郎, 『母を恋うる記』, 新潮社, 1991, p.313

운 것은 모친사모계열의 작품에는 주인공인 소년이 어머니를 잃은 것은, 혹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는 것은, 거의 6세 전후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니자키가 실제로 어머니와 사별한 것은 32세 때이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년이 헤어지는 경우는 항상 6세 전후이다. 결국 잔혹한 어머니에 비해 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고착이, 다니자키의 모성사모의 작품계열에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母を恋ふる記』에서는, 분명히 두 어머니가 등장한다.

한 사람은 「밥을 짓는 나이든(飯を炊く年老いた)」어머니, 또 한 사람은 「누나(お姉様)」라고 하는 젊은 어머니이다. 첫 번째 어머니인 경우가 보다 현실의 어머니에 가까운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고와 연령 때문에 아름다움을 잃은 모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을 추구하여 모친이 나이 든 모습을 거부하고,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모친, 즉 자신의 6세 이전의 모친으로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머니의 경우가 후자의 6세 이전의 모친인 것이다.

오세키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작가에게 주관적인 미의 개념을 넘어서, 부유하게 살았던 유년기를 상징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크다. 다니자키는 유년기에 어머니의 육체를 통하여 미에 눈을 떴고, 훗날에도 그의 여성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세키는 다니자키에게 미의 기준이며, 작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자키는 여성의 미에 매료되어, 여성의 미를 숭상한 나머지, 여성에게 억압당하고, 지배받으며 쾌락을 느끼는 남성을 묘사한다. 이를 <페티시즘>과 <마조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Ⅲ. 다니자키 문학에 나타난 여성숭배 세계관

1). 페티시즘

<페티시즘>은 이성의 육체의 일부나 몸에 지닌 물건 등에 보통 사람이 느끼는 이상의 특별한 마력을 느껴 성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성도착의 일종으로 성애의 대상이 이성의 존재의 전체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일부(머리카락, 손, 발, 손가락, 손톱, 귀 등. 통상적으로 성기를 제외한 전부), 이성의 신체에 걸친 것(신발, 양말, 속옷, 손수건, 반지 등), 혹은 이성의 상징이 되는 것(동전, 피혁 등)을 성적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말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잠시 서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새, 滋幹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던 공포감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달콤하고 그리운 감각으로 변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滋幹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항상 피웠던 향의 냄새가 그 방안에 퍼져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예전에 어머니가 입었던 옷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親子はしばらく、互に眼で探りを入れながら見合つてゐたが、でもそのうちに、滋幹の心を壓してゐた恐怖感が次第に和らいで、或る云ひ知れぬ甘いなつかしい感覺に代つた。それが何に原因するのか滋幹にも最初は分らなかつたが、間もなく彼は、あの、母が常に薫きしめてゐた薫物の香が、此の部屋の中に満ちてゐることに氣づいた。そして、よく見ると、父がすわつてゐるあたりに、むかし母が

身に着けてゐた袷や、單衣や、小袖や、さまな衣裳が取りちかしてあるのであつた。」¹⁴⁾

이러한 물체를 페티시(fetish-物神, 呪物)라고 하고, 페티시의 획득, 접촉, 소유에 의해 통상의 성교이상의 성적 만족과 흥분에 달성된다. 일본어로는, 절편음란증(節片淫亂症), 물건연애(物件恋愛), 음물증(淫物症), 주물숭배(呪物崇拜) 등으로 해석되지만 적절하게 말할 수 없어 현재는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통상의 성애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와 그 일부가 특별한 애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이 원래의 대상에서 떼어져서, 전체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성을 얻은 상태가, 성도착으로서의 페티시즘이다.

다니자키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도, 다니자키가 세이코(せい子)¹⁵⁾의 발을 총애한 사실을 보아도, 적어도 <발-페티시즘(foot-fetishism)>¹⁶⁾의 경향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니자키 문학에 유년시대의 환경이 투영된 것은 <페티시스트>성향이 강한 다니자키家の 영향이다. 다니자키의 <발-페티시즘>은 이미 유소년기에 어머니의 희고 아름다운 발에서 형성되었다. 또한, 다니자키가 여성을 숭배하게 된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조부인 쿠에몬(久右衛門)도 다니자키의 심리적 성장에 크게 역할을 하였다.

<페티시즘>의 경향은 다니자키의 처녀작이자 대표작인 『刺青』에

14) 谷崎潤一郎, 『少將滋幹の母』, 『谷崎潤一郎全集39』 筑摩書房, p.378

15) 1915년 谷崎潤一郎가 30세 때 결혼한 이시카와 치요코(石川千代子)의 여동생.

16) 이성의 발에 대한 이상(異常) 성욕의 일종.

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페티시즘> 중에서도 발에 대한 <발-페티시즘>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세이키치(清吉)는 젊은 「刺青師」이다. 그는 원래 우키요에(浮世繪)를 그리는 화가였다. 「刺青師」로 타락하였지만, 그는 화가로서의 양심과 예민한 감각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에 드는 골격과 피부의 소유자가 아니면 문신을 시술해 주지 않는다.

세이키치가 문신을 새길 때의 모습을 보면, 상대의 신음 소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쾌감을 얻는다.

그 신음소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유쾌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중략)

하루평균 오·육백 개의 바늘에 찔리고 색상을 좋게 하기 위해 더운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모두 반쯤 죽은 몸으로 세이키치의 발 아래에 쓰러진 채 한동안 몸 움직임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 잔혹한 모습을 언제나 세이키치는 냉담하게 바라보며

「필경 아플 거야」라고 말하면서 유쾌한 듯이 웃고 있다. (중략)

「음, 너는 보기 드문 고집쟁이다. -하지만 봐라, 머지 않아 슬슬 쭈셔 와 아무리해도 참을 수 없게 될 테니까」라고 하얀 이를 보이며 웃었다.

其のきごゑが激しければ激しい程、彼は不思議に云ひ難き愉快を感じるのであつた. (中略)

一日平均五六百本の針に刺されて、色上げを良くする爲め湯へ浴つて出て來る人は、皆半死半生の體で清吉の足下に打ち倒れたまま、暫くは身動きさへも出來なかつた. その無殘な姿をいつも清吉は冷やかに眺めて、

「さぞ痛みでがせうなあ」と云ひながら、快さうに笑つて居る。(中略)
 「ふむ、お前さんは見掛けによらねえ突つ張者だ。-だが見なさい、
 今にそろそろ疼き出して、どうにもかうにもたまらないやうになら
 うから」と、白い齒を見せて笑つた. 17)

여기서 세이키치는 문신의 고통, 즉 가학의 고통을 맛보는 쾌락인 새디즘(sadism)¹⁸⁾의 요소를 갖고 있는 남자로 보이나 그의 본래의 숙원은 「아름다운 미녀의 살갓 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는 것(光輝ある美女の肌を得て、それへ己れの魂を刺り込む)」이었다. 즉 육체적 가학의 본능을 쾌감으로서 맛보고 즐기고 있는 젊은 문신사의 새디즘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가 숙원 했던 여성을 만나는 순간 상황이 반전된다. 이것을 보면 세이키치는 새디스트라기 보다는 마조히스트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새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도 같은 일이고, 생명을 불어넣은 후에 남는 것은 육체뿐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발이야말로, 결국 남자의 生血로 비대해지고, 남자의 몸을 짓밟는 발이었다. 이 발을 가진 여자야말로, 그가 영원히 찾아 왔었던, 여자 중에 여자라고 생각되었다. (중략) 이것으로 꼭 5년, 난 널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을 보기는 처음이지만, 네 발은 본 기억이 있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니까 다가와서 놀다가는 것이 좋겠다.」

17) 『谷崎潤一郎全集』第一卷, 角川書店, 1971, p.64

18) sadism : 가학증(加虐症)·학대 음란증(虐待淫亂症)·도착성욕(倒錯性慾)의 하나. 이 말은 도착성욕을 가진 프랑스의 작가 사드(Sade)의 이름에서 유래된다. 이성(異性)을 공격하며 고통을 주는 일로 성욕의 만족을 얻는 것 같은 잔학성(殘虐性)을 가진 성애(性愛)를 가리킨다. 精神分析事典, R·シェママ編, 弘文堂, 1999년

「この足こそは、やがて男の生血に肥え太り、男のあむくろを踏みつける足であった。この足を持つ女こそは、彼が永年たずねあぐんだ、女の中の女であろうと思われた。(中略)丁度これで足かけ五年、己はお前お待っていた。顔を見るのは始めてだが、お前の足にはおぼえがある。お前に見せてやりたいものがあるから上ってゆっくり遊んで行くがいい。」¹⁹⁾

「날카로운 그의 눈에 비친 인간의 발은 그 얼굴과 같이 복잡한 표정으로 비쳤다. 그 여자의 발은 그에게 있어서 귀한 육체의 보석이었다.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어 새끼발가락으로 끝나는 옥과 같이 섬세한 다섯 발가락의 가지런함, 에노시마의 해변가에서 잡히는 담홍색의 조개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발톱의 색, 진주와 같이 둥근 발꿈치, 청결한 바위틈의 물이 끊임없이 발 아래를 씻은 것 같이 의심되는 피부의 윤택. 이런 발을 가진 여자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끝내 찾지 못한, 여자중의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鋭い彼の眼には、人間の足はその顔と同じように複雑な表情を持って映った。その女の足は、彼にとってはお宝の寶玉であった。拇指から起って小指に終る繊細な五本の指の整い方、繪の島の海辺で獲れるうすべに色の見にも劣らぬ爪の色合い、珠のような踵のまる味、清冽な岩間の水が絶えず足下を洗うかと疑われる皮膚の潤澤。この足を持つ女こそは、彼が永年たずねあぐんだ、女の中の女であろうと思われた。」²⁰⁾

이와 같이 다니자키의 문학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발에 대한 표현은 숭배함까지 이르게 된다.

19) 谷崎潤一郎, 앞의 글, p.65

20) 谷崎潤一郎, 앞의 글, p.65

위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세이키치가 추구하는 절대적 미는 곧 남성을 발판으로 자신이 비대해 지고 여신과 같은 절대자로 군림하며, 모든 남자는 그 발에 의해 정복된다는 변태적 관능미이다.

이런 세이키치의 여성상은 여체의 하얀 발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전략)그는 우연히 문전에 기다리고 있는 가마의 발 그늘을 통해, 새하얀 맨발이 나와 있는 것을 알았다.」

「(前略)彼はふと門口に待っている駕籠の簾のかけから、眞っ白な女の素足のこぼれているのに気がついた。」²¹⁾

이와 같이 세이키치가 원하던 발은 단순한 발이 아니라 육체와도 같은 보석 같은 발이다. 이 작품 외에도 다니자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이상적인 여성의 육체를 통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티시즘의 행방은 중년부부의 <性> 세계를 묘사한 『鍵』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또 내가 발을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녀 또한 자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그녀의 발은 45세 여자의 발이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다)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아니 알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 발을 내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한 여름의 더위에도 그녀는 대개 양말을 신고 있다. 그 발등에 입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더러워요 라든지, 발에 입을 대는 것은

21) 谷崎潤一郎, 앞의 글, p.66

아니라고 말할 뿐, 좀처럼 허락 해 주지 않는다.]」

「彼女ハ又僕ガ足ノfetishistデアルコトヲ知ツテキナガラ、且彼女ハ自分が異常ニ形ノ美シイ足(ソレハ四十五歳ノ女ノ足ノヤウニハ思ヘナイ)ノ所有者デアルコトヲ知ツテキナガラ、イヤ知ツテキルガ故ニ、メツタニソノ足ヲ僕ニ見セヨウトシナイ。眞夏ノ暑イ盛りデモ彼女ハ大概足袋ヲ穿イセル。セメテソノ足ノ甲ニ接吻サセテクレト云ツテモ、マア汚イトカ、コナン所ニ觸ルモノデハアリマセントカ云ツテ、ナカナカ願ヒヲ聽イテクレナイ。」²²⁾

이와 같이 다니자키는 여성의 아름다운 발에 이상할 정도의 관심과 집착을 표현하고, 여성의 발을 중심으로 <여성의 미>를 숭배한 것이다. 이것을 여성의 발에 대한 <페티시즘>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페티시즘>은 처녀작 『刺青』에서 『癡癲老人日記』에 이르기까지 다니자키 문학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다니자키에게 있어서 여자는 하나의 인형이기도 했다. 『痴人の愛』에서 죠오지(讓治)는 나오미를 인형으로 간주한다. 죠오지에게 있어 나오미의 존재는 인형과 같은 장난감이 주는 즐거움을 제공하므로 나오미는 인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나오미는 아내인 동시에 세상에서도 진귀한 인형이며 장식품이다…」

「…妻は世にも珍しい人形か装飾品なのだ…」²³⁾

이와 같은 발상은 『蓼喰う虫』에서 「신이랄까 완구랄까(神であるか

22) 谷崎潤一郎, 「鍵」, 『谷崎潤一郎大系31』, 筑摩書房, 1970년, p.364

23) 谷崎潤一郎, 「痴人の恋」, 『日本近代文学大系 全30卷』, 角川書店, 1971년, p.42

玩具であるか)』²⁴⁾의 양자택일의 발상과 같다. <신=인형, 완구=장식품>이라고 하는 구도는 <여성>의 절대화로 볼 수 있다.

즉 <여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痴人の愛』와 『蓼喰う虫』 뿐만 아니라 다니자키의 문학세계의 전반에 흐르는 미적 인식의 기본이다.

다니자키의 경우, 여성의 발은 그 자체가 일개의 완전한 미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여성의 발아래서 굴복하고 그 발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니자키 문학에 그려지는 여주인공은 다니자키가 유소년기에 본 어머니의 희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여성이야말로, 『刺青』에서 말하듯, <여성중의 여성>이다.

여기서 다니자키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여성상을 살펴보자.

다니자키가 자신의 수필집 『雪後庵夜話』²⁵⁾(1967) 나가이 가후(永井河風)의 여성관을 냉소하면서 자신의 여성관과 비교한 글이 있다.

나는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선생(나가이 가후)과는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나는 페미니스트지만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연애에 관해서는 서물숭배교도이고 열광적이고 과격한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선생님은 여성을 자기 이하로 내려보고 그녀들을 희롱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 나는 여성을 나보다 위가 아니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私は、對女性の態度でも先生(永井河風)とは行き方を異にしていた。私はフェミニストであるが、先生はそうではない。私は變愛に關しては庶物崇拜教徒であり、ファナチックであり、ラジカルで生一

24) 谷崎潤一郎, 「蓼喰う虫」, 新潮文庫, 1951년, p.105

25) 中央公論編

本であるが,先生は女性を自分以下に見下し,彼女等を玩物祝する風があるが,私はそれに堪えられない。私は女を自分より上でなければ女とは思わない²⁶⁾

여기서 다니자키는 나가이 가후가 여성을 노리개로 삼고 여성을 알보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여성을 인형처럼 여기는 다니자키와 노리개로 삼아 즐겼다는 나가이 가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다니자키 자신은 페미니스트이고 여성을 자신보다 상위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니자키의 여성관이 보다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은 앞서 이야기했던 『蓼喰う虫』이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이거나 완구이거나 어느 한쪽이어야 하는데 아내와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은 그가 보기에, 아내는 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女というものは神であるか玩具であるかの孰れかであって、妻との折り合いがうまく行かないのは、彼から見ると、妻がそれらの孰れに屬していないからであった.」²⁷⁾

「이렇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이 집이 이미 제2의 아내를 맞이한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것 같은 어리석은 공상이 떠올랐다. 생각하면 이번 봄부터 자주 기회를 만들어 노인에게 접근했던 것은 자신으로는 의식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대책 없는 꿈을 머리 한 구석에 남몰래 품고 있으면서, 그런 이유로 자신을 책망하려고도 자제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은

26) 文藝讀本, 「谷崎潤一郎文学の本質」, 河出書房新社, 1984, p.177

27) 谷崎潤一郎, 「蓼喰う虫」, 新潮文庫, 1951년, p.105

아마 오히사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오히사라는 하나의 타입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こうして風呂に漬かっている此處の家が、すでに第二の妻を迎えた自分の新居であるような愚かしい空想が湧くのであった。思えばこの春からしきりに機會を求めては老人に接近したがったのは、自分では意識しなかったところの外の理由があったのかも知れない。そういう方もない夢を頭の奥に人知れず包んでいながら、それで己れを責めようとも戒しめようとしなかったのは、多分お久と云うものが或る特定な一人の女でなく、むしろ一つのタイプであるように考えられていたからであった。」²⁸⁾

다니자키 예술의 특색은, 나가이 가후의 <향락>에 대한 태도가 이 지적으로 뒤집은 윤리라고 할 만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비해, 어디까지나 감각적인, 상대를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에게 정복 당함으로써 소유한다는 그의 특이한 천성에서 온, 미와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에 있는 것이다. 즉, 나가이 가후의 작품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환락>을 위한 도구로써 취급되는 데 비해 다니자키에 있어서는 처녀작 『刺青』에서 엿보이듯이 모든 남성은 여성의 미를 빛내기 위한 <肥料>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비료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그림 중앙에 젊은 여인이 앵두나무에 몸을 기대어 발 밑에 널려 있는 수많은 남자의 시선을 보고 있었다. 여인의 몸 주변을 맴돌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새 떼들, 여인의 눈에 넘쳐흐르는 억누르기 힘든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28) 谷崎潤一郎, 「蓼喰う虫」, 新潮文庫, 1951년, p.193

빛, 그것은 전쟁터의 모습인가 화원의 풍경인가.]」

「それは<肥料>と云ふ畫題であつた。畫面の中央に、若い女が櫻の幹へ身を倚せて、足下に累々と斃れている多くの男たちも屍骸を見つめて居る。女の身邊に舞ひつゝ凱歌をうたふ小鳥の群,女の瞳に溢れたる抑へ難き誇りと歡びの色。それは戰の跡の景色か、花園の春の景色か。」²⁹⁾

이와 같이 다니자키는 여성을 본능이나 감각의 대상이 아닌 자기의 이상형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여성만을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니자키는 페미니스트였고 유년기에 페미니스트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마리아상에서 느낀 하얀 발에 집착하였다.

다니자키 작품 중에서 여자의 발을 숭배하는 것으로, 『刺青』 이외에 『富美子の足』, 『癡癲老人日記』 등의 작품에서도 <발-페티시즘>을 엿볼 수 있다. 『富美子の足』는 소설의 전체적 구성이 <발-페티시즘>으로 이루어진 대표작이다. 주인공 인쿄가 발에 대한 가장 강한 쾌감을 느끼는 것은 결상에 후미코를 얹혀 놓고 자신은 개 흥내를 내며 그녀의 발에 달라붙는 것이다. 인쿄가 자신의 병 때문에 직접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면 화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 대신에 그 같은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봄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런데 인쿄의 부탁을 받은 화자 자신도 그런 행동에 쾌락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발-페티시즘>은 단순히 특정 신체의 한 부분인 발에 대한 집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29) 「谷崎潤一郎全集」第一卷, 角川書店, 1971년, p.67

그것은 본질적으로 <마조히즘>을 내포하는 것이다. 결국 인교는 이
마에 후미코의 발을 얹은 채 환희 속에서 숨을 거둔다.

다니자키의 작품 속에서 노인의 <페티시즘>적인 광적 태도의 기술
은 『癡癲老人日記』에서 엿볼 수 있다.

16일.

「그 발바닥에 이걸 칠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 白唐紙에 朱칠한
발바닥 拓本을 뜨지.」 「그런걸 해서 뭐해?」

十六日.

「...君ノ足ノ裏ヨ嚙カセテモラウ. ソウシテコノ白唐紙ノ色紙ノ上
ニ朱デ足裏ノ拓本ヨ作ル.」 「ソナモノガ何ニナルノ.」

23일.

「목욕을 도와주려고 온 그녀는 푸른색 에펠탑이 그려진 포로서츠
에, 무릅까지 오는 토레아들 펜츠차림으로 굉장히 멋있고 산뜻하
였다.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었다. 목둘레, 어깨 팔 같은 곳에 가끔 손이 슬쩍 닿곤 하였다.」

二十三日.

「...入浴ノ助手ヨスル時, 彼女ハプリユウデエツフェル落ノ模様ノ附
イタポロシャツヨ着テ、膝ノトコロマデノトレアドロパンツヨ穿イ
テイルガ、素晴ラシクストツキリト意氣ニ見エタ、心ナシカ、イツモ
ヨリ念入りニ流シテクレタヨウナ氣ガシタ. 首ノ周リダノ肩ダノ、
腕ダノトコロニチヨイチヨイ手が觸ツタ.」³⁰⁾

다니자키가 77세에 쓰여진 이 작품에서도 노인은 아무것도 구애받
지 않고 자기의 흥미를 끄는 여성과 발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

30) 谷崎潤一郎, 『谷崎潤一郎全集9』, 「癡癲老人日記」, 六興出版社, 1977년

다.

이 같은 작품 속에서 다니자키의 미의식은 여체미 중에서도 발을 숭배하는 미의 상징이며, 여성숭배, 여체탐미로 함축되는 다니자키의 여성관의 초점이다.

다니자키는 또한, 여성의 육체만을 찬미하고. 인격을 경시하며, 인형처럼 취급하는 경향(『刺青』 『痴人の愛』 『春琴抄』 『鍵』 등)을 보인다.

이것은 다니자키가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멸시하고, 아름답고 강한 여성을 진정한 자신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환상을 여성에게 투영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의 인격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의 여성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페티시즘>발생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페티시즘>의 쾌락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육체적 만족보다 상상력에 의한 것이지만, 다니자키는 상상력만으로도 <페티시즘>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니자키는 처녀작 『刺青』, 『痴人の愛』, 『富美子の足』 그리고 후년의 『癡癲老人日記』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발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었다.

다니자키에게 있어, 여성의 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미적인 전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여성의 발아래서 굴복하고 그 발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니자키 문학에 그려지는 여주인공은 다니자키가 유소년기에 본 어머니의 희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여성이야말로, 『刺青』에서 말하듯, <여성중의 여성>이다.

2). 마조히즘

<마조히즘>은,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과 굴욕을 받음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성도착경향을 말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마조히즘>의 일반적 해석은 변태성욕으로서 被虐愛라고도 한다. 즉, 남녀간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고통을 받는 것에 의해 성적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새디즘>에 대응한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마조흐(Leopold Von Sacher-Masoch, 1836~1895)가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이 같은 테마의 소설을 쓴 것에서 비롯된다. <마조히즘>의 심리기제는, 새디즘이 반전하여 자기를 향한 것, 새디즘적인 상대와의 동일시, 죄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 의해 쾌락을 얻는 죄의식의 경감, 본래 권압적인 양친상을 달래기 위하여 취했던 순종적 역할의 성애화 <죽음의 본능>의 顯現등으로 생각되어진다.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학파는, <마조히즘>의 용어를 넓게 사용하여, 인격발달과 공격적 요인의 표현, 인격의 수동성 옆의 여성성, 초자아에 대한 자아의 복종, 건강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속에서 머무르고 싶은 신경증자의 경향에 대하여 <마조히즘>적이라고 한다.

다니자키에게 <마조히즘>의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작품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과 그 자신이 <唯一の告白書>라고 칭하는 『異端者の悲』에서, 스스로를 <마조히스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은 마조히즘에서, 즉 무언가를 위해 자기를 예속시킴으로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사상인 것 같다. 이 無私를 지향하는 사상은 소설에서의 자기주장과는 반대로 자기를 버리고 전통이나 풍속의 무거움 앞에 자신을 던져버린다는 형태로 풍부한 스토리를 작품 속에서 구현했다. 따라서 다니자키는 마조히즘을 통하여 전통미와 에로티즘을 體現하고 있다.

다니자키의 문학작품의 특색은 악마주의·탐미주의·고전주의·변태성욕적 미의식 추구등으로 일관하였지만, 다니자키 문학을 비평하는 흐름도 있었다.

그러나 다니자키 문학에 대한 평가는 나가이 가후가 처음으로 1991(明治44)年 11월에 발간된 『三田文學』에서 『谷崎潤一郎氏の作品』을 통해 다니자키의 문학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 육체적 공포에서 생기는 신비유현이다.

육체상의 잔인함에서 반동적으로 맛볼 수 있는 통절한 쾌감이다.

② 완전히 도회적이다.

에도에서 동경으로 바뀐 도회는 氏의 사상적 향토이다. 그러므로 넓게 보면 氏의 작품은 완전히 향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문장이 완전하다.

현대의 일본 문단은 인생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문학적 제작의 한 요소인 문장문제를 제외해 버린 후이기 때문에 내가 새삼스럽게 이와 같은 논의를 제출하는 어리석음을 웃을지도 모른다.

① 肉體的恐怖から生ずる神秘幽玄である。

肉體上の慘忍から反動的に味ひ得らるる痛切なる快樂である。

② 全く都會的たる事である。

江戸より東京となつた都會は氏の思想的郷土であるが、故に、廣く見れば氏の作品は全く郷土的であるとも云へる。

③ 文章の完全なる事である。

現代の日本文壇は人生の爲めなる口實の下に全く文學的製作の一要素たる文章の問題を除外してしまつた後なので、自分が今更の如き論議を出す愚を笑ふかも知れぬ。

여기서 나가이 가후는 직접적으로 <마조히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① 육체적 공포에서 생기는 신비유현이다.(肉體的恐怖から生ずる神秘幽玄である)』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자키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인 <마조히즘>이라 볼 수 있다. ②의 「도회적(都會的たる事である)」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자키의 <사상적 향토>로서, 그 도회성은 다니자키에 있어서는 로맨티시즘도 동경도 아닌 바로 <현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니자키의 예술의 특색은, 나가이 가후의 <향락>에 대한 태도가 이지적으로 뒤집은 윤리라고 할 만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비해, 어디까지나 감각적인, 상대를 정복하기보다 오히려 상대에게 정복당함으로써 소유한다는 그의 특이한 천성에서 온 미와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에 있다.

즉, 다니자키의 문학적 특색은, 작품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다. 나가이 가후의 작품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환락>을 위한 도구로써 취급하는 데 비해 다니자키에 있어서는 처녀작 『刺靑』에서 엿보이듯이 모든 남성은 여성의 미를 빛내기 위한 <肥料>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다니자키는 나가이 가후보다 한층 철저한 탐미주의자이며, 페티시즘·마조히즘적인 변태성욕의 세계를 묘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통과 쾌락의 변태적 세계가 다니자키의 문학작품에는 여성숭배라는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刺青』, 『痴人の愛』, 『春琴抄』). 예를 들어 『刺青』를 보면, 남성에게 문신을 받아 눈부신 미녀로 변신하는 여자와, 스스로 미녀의 <肥料>가 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남성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너를 진실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문신 속에 내 혼을 쏟아 부었다. 자, 지금부터는 온 일본에 너를 능가하는 여인은 없다. 나는 더 이상 이제까지와 같은 비겁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남자란 남자는 다 너의 비료가 되는 것이다....」

「己はお前をほんとうの美しい女にする爲めに、刺青の中へ己の魂をうち込んだのだ。もう今からは日本國中に、お前に優る女は居ない。お前はもう今までのような臆病な心は持っていないのだ。男と云う男は、皆なお前の肥料になるのだ、....」³¹⁾

「“어르신, 저는 이제 비겁한 마음을 훌쩍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제일 먼저 내 비료가 된 것 이에요” 여자는 칼날 같은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그 귀에는 승리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親方、私はもう今までのような臆病な心を、さらりと捨ててしまいました。お前さんは眞先に私の肥料になったんだねえ”と、女は劍のような瞳を輝かした。その耳には凱歌の聲がひびいた。」³²⁾

31) 「谷崎潤一郎全集」第一卷, 角川書店, 1971년 p.68

32) 谷崎潤一郎, 앞의 글, p.68

이것은, 아름다운 여성을 다니자키 문학의 중심에 두고 그 매력에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다. 아름다운 문신에 의해, 여성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남성은 이런 여성에게 목숨이라도 받칠 만큼 복종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위의 작품 끝 부분에서 나타나는 대화에서 작품의 첫머리에서 암시한 것과 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된 소녀는 과거의 두려움을 버리고 아름다운 <악녀>로 변하여 남성을 <肥料>로 만든 것이다.

「그가 몇 해 전부터의 숙원은 빛나는 미녀의 살갓을 구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여자의 자질과 용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다. 그저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피부만으로는 그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에도 전역의 윤곽에 이름을 떨친 여자라는 여자는 다 조사해 보아도 그의 마음에 꼭 드는 느낌의 여자는 쉽게 발견할 구 없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여자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며 3,4년을 헛되이 동경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彼の年來の宿題は、光輝ある美女の肌を得て、それへ己れの魂を刺り込む事であった。その女の素質と容貌とに就いては、いろいろの注文があった。美しい顔、美しい肌とのみでは、彼は中々満足する事が出来なかった。江戸中の色町に名を響かせた女といふ女を調べても、彼の氣分に適った味はひと調子とは容易に見つからなかった。まだ見ぬ人の姿かたちを心に描いて、三年四年は空しく憧れながらも、彼はなほ其の願ひを捨てずに居た。」³³⁾

33) 谷崎潤一郎, 앞의 글, p.66

여기에서 이 소설은 끝나지만 『刺靑』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은 강자이고, 추한 것은 약자(美しい者は強者であり, 醜い者は弱者)」라는 것이다. 모두가 강자가 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겼다. 그런데, 세이키치는 강한 자를 만들면서 쾌감을 느낀다. 상대방에게 문신해줄 때 고통을 줌으로서 생기는 쾌감을 느낀 것이다. 이는 가학적 쾌감에서 피학적 쾌감으로의 전환, 즉 사디즘에서 마조히즘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세이키치에게는 사디즘적 쾌락 아래엔 마조히즘적 쾌락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刺靑』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것, 타인의 문신이 된다는 것은 곧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또한, 그 미는 악하면 악할수록 한층 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름다움은 마조히즘적 쾌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니자키는 이 작품에서 세이키치라는 「刺靑師」를 통하여 여자의 육체에 완전한 자신만의 미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니자키 문학에 보이는 <마조히즘>은, 심한 신체적 고통을 실제로 맛보는 것은 물론이고, 남성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경멸적으로 취급되어지거나, 돈을 갈취 당하거나, 배반당함으로써, 숭배하는 여성에 대하여 성적 쾌락을 느끼는 예가 많다. 즉 다니자키의 <마조히즘>의 원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절대적 헌신이다. <마조히즘>은, 강한 여성 즉, 어머니에게 강제적으로 취급당하는 것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무력한 유아기로 돌아가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충

동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것은, 다니자키의 이상여성이 자주 그림·조각·영화 속의 여 천상의 이데아 등, 오로지 일방적으로 동경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경향도 빈번히 보였다.

다니자키에게 있어서 여성은 하나의 인형이기도 하다. 『痴人の愛』에서 죠오지(讓治)는 나오미(ナオミ)를 인형으로 간주한다.

다니자키는 또한, 어머니에의 집착이 지나치게 강하고, 종종 아버지가 남성으로서 너무도 약한 것도 있어, 오디프스 시기³⁴⁾에 어머니에의 근친 상간 적인 사랑을 단념하고, 아버지를 모델로 하여 남성적인 어른의 남성이 되는 정상적 발달과정을 밟을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이상 여성에게서 어머니를 찾은 것이다. 어머니를 이상으로 하여 어른이 된 것은 또한, 다니자키에게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싶다는 여성화 원망을 내포하고,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화경향도, 강한 여성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남근성을 부정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표현, <마조히즘>에 결부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성화 원망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미녀를 참된 자신이라고 자신은 무가치한 거짓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보고 기꺼이 희생한다는 심리메카니즘에 의해서도, <마조히즘>과 결부되고 있다.

34) 1. 男根期에 어린이가 양친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備給의 전체. 2. 이러한 備給이 소멸되어, 그것이 동일화로 치환 되어 가는 과정. 프로이드의 중요한 발견은 이른바 오디프스 콤플렉스이다. 그는 모든 신경증의 밑바닥에는 해소되지 않은 '오디프스 콤플렉스'가 있다고 가정했다. 이것은 네 다섯 살의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성적 집착과 동시에 라이벌이 되는 아버지에 대한 적의의 감정, 또 동시에 아버지에 의해 거세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관념의 복합을 오디프스 콤플렉스라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프스 왕'에서 이 이론의 근거를 삼는다. (精神分析事典, R·シエママ編, 弘文堂, 1995.)

예를 들면, 『痴人の愛』, 『春琴抄』, 『少將滋幹の母』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다니자키의 문학의 변형을 보면, <마조히즘>은 「蓼喰ふ虫」부터 1955년(昭和30)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日本回歸의 시기에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그 전후를 계기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회귀 이전에는 남성으로서 강하고 싶은 남근성적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무력한 유아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의 갈등이 격해져 마조히즘도 극적인 형태가 되어 나타났다.³⁵⁾ 일본회귀 시기에는, 약자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경이 되어, <마조히즘>이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만년에는 닥쳐오는 죽음의 공포를 떨치기 위해 젊은 여성의 육체에 흡수·합체되기 위한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재차 <마조히즘> 혹은 젊은 여성과 연결된다고 생각되어진다.

『痴人の愛』는 大正13년부터 1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그 해는 다니자키가 관동대지진으로 동경에서 관서에 피난한 해이다. 관서는 임시의 거주지로 이윽고 관동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점점 자리잡게 되어 버려, 그것은 동시에 고전문학으로의 회귀라고 불리는 한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된다. 관동대지진과 구에 따른 관서이주가 다니자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운명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痴人の愛』는 <마조히스트>로서, 남성에 대하여 폭력과 권위를 휘두르고 싶은, 도발적인 여성에게 빠져든 그런 자신을 쓴 태도를, 깨끗이 씻어내고, 더 넓게, 남성일반 심리의 세계에 테마를 넓힌 것이라고

35) 「谷崎潤一郎とマゾヒズム」, 『国文学』, 学灯社, 1978년

할 수 있다.

<마조히스트>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의 결말에서 주인공 죠오지(讓治)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을 읽고 가소롭다고 생각하는 분은 웃으십시오.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나오미에게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これを讀んで、馬鹿馬鹿しいと思う人は笑って下さい。教訓になると思う人は、いい見せしめにして下さい。私自身は、ナオミに惚れているのですから、どう思われでも仕方がありません。」³⁶⁾

죠오지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을 <痴人>이라고 자인한다. 다니자키에게 중요한 것은 <미>와 <악>이 구현하는 에로티즘의 세계로서 그것은 <자기포기>를 통해 실현된다.

이와 같다면, 독자는 웃고 싶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웃음이 도중에 멈추게 되어, <마조히스트>특유의 심리로, 「私は一生懸命やって失敗した、いじけただめな男です。」라고 하면서 독자에게 힌트를 준다.

아름다운 여성을 숭배하는 다니자키의 문학세계는 작품 『痴人の愛』을 보아도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자신의 미를 자각한 주인공 나오미(ナオミ)가, 자신이 매력으로 남성을 지배하여 자유분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는 몇 번이나 생각 해 보았지만, 오늘밤의 나오미는, 저 더럽

36) 谷崎潤一郎, 『日本近代文学大系 全30卷 - 谷崎潤一郎』,角川書店, 1971년

고 추잡스러운 淫婦인 나오미, 많은 남자에게 지독한 별명이 붙여져 있는 매춘부나 다름없는 나오미와는, 완전히 양립하기 어려운 바인, 그리고 나 같은 남자는 단지 그 앞에 무릎 꿇고, 숭배하는 수밖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바인, 귀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私は幾度も考えて見ましたが、今夜のナオミは、あの染らわしい淫婦のナオミ、多く男にヒデイ仇名を付けられている賣春婦にも等しいナオミとは、全く兩立し難いところの、そして私のような男はただその前に跪き、崇拜するより以上のことは出ないところの、貴い憧れの的でした。」³⁷⁾

나오미의 경우와 같이, 여성이 여성자신의 성본능을 가지고 남자를 유혹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서,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여성은 그 자체를 악이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여성의 성적인 존재원리를 악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여성의 측면에 있는 원인이 아닌, 다니자키의 에로티즘의 원리인 것이다.

<마조히즘>은 만년의 다니자키의 문학 세계에서도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죽어버리면 그런 일을 생각할 의지가 없어질까. 육체가 없어지면, 의지도 없어지는 당연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녀에 대한 욕망의 일부는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녀가 돌을 밟고 나는 지금 저 노인의 뼈를 이 땅 아래에 밟고 있다고 느끼는 때, 그 혼도 어딘가에 살아 있어서, 그녀의 몸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발바닥의 촉감을 느낀다. (중략)울면서 “아퍼, 아퍼”라 외치고, “아프지만 좋아, 너무 좋아,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좋다”라

37) 谷崎潤一郎, 『日本近代文学大系 全30卷 - 谷崎潤一郎』, 角川書店, 1971년

외치며 “좀더 세계 밟아줘”라 외친다.]」

「死ンデシマエバソナコトヲ考エル意志ハナクナルデアロウカ。ドウモ豫ニハソウ思エナイ。肉體ガナクナレバ意志モナクナル道理ダケレドモ、ソウトハ限ルマイ。タトエバ彼女ノ意志ノ中ニ豫ノ意志ノ一部モ乗り移ッテ生き殘ル。彼女ガ石ヲ踏ミ着ケテ、「アタシハ今アモ老耄レ爺ノ骨ヲコノ地面ノ下デ踏ンデイル」ト感ジル時、豫ノ魂モ何處カシラニ生キテイテ、彼女モ全身ノ重ミヲ感ジ、痛サヲ感ジ、足ノ裏ノ肌理ノツルツルシタ滑ラカサヲ感ジル。(中略)泣シナガラ豫ハ“痛イ、痛イ”ト叫ビ、“痛イケレド樂シイ、コノ上ナク樂シイ、生キテイタ時ヨリ遙カニ樂シイ”ト叫ビ、“モット踏ンデクレ、モット踏ンデクレ”ト叫ブ。」³⁸⁾

다니자키는 시간이 흘러 만년이 되어도 어머니의 영원성의 추구는 변함 없이 계속되었고, 『癡癡老人日記』에 있어서는 여성의 발의 형태로 만든 墓石 밑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밟히고 싶다는 이상한 정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마조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마조히즘>에 있어서, 결국 무언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에 의해 처음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니자키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無私>를 지향한 사상은, 소설에 있어서 자기주장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인간 드라마에 공감하고, 혹은 전통과 풍속 앞에 자기를 버리는 형태로 작품 속에서 구현되었다.

<마조히즘>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어머니인 여성에 살해되어 영

38) 谷崎潤一郎, 「癡癡老人日記」全集9, 六興出版社, 1977년

원히 어머니 속에 흡수·합체된다고 하는 환상으로, 『春琴抄』 등에서 볼 수 있다.

『春琴抄』는 다니자키 문학의 최대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여성숭배>, <육체애>, <마조히즘>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다니자키의 탐미주의가 한층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 春琴도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 붓대를 떼도 관촬을 만큼 치유된 어느 날 아침 일찍 佐助는 下女の 방에서 경대와 바늘을 몰래 갖고 와 이불 위에 端座하여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동자 속에 바늘을 꽂았다. 바늘로 찌르면 눈이 안보이게 된다는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고통이 적고 간단한 방법으로 장님이 되고자 바늘로 눈동자를 찌러 본 것이다. 눈동자에 바늘을 찌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흰자위는 딱딱해서 바늘이 안 들어간다. 반면 검은 자위는 부드러웠다. 두 세 번 찌르자 폭 하고 二分정도 들어갔다. 그러자 금방 안구 전체가 부엌게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출현도 발열도 없었다. 열도 통증도 거의 없었다.(中略)잠시 후 春琴이 깨었으리라고 생각될 무렵, 더듬더듬 안방으로 가서 스승님, 저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생 얼굴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고 그녀 앞에 이마를 조아리며 말했다. 佐助, 그게 정말이냐, <春琴> 은 한마디 發한 채 오랫동안 묵묵히 沈思하고 있었다. <佐助> 는 세상에 태어나서 전에도 후에도 이 침묵의 수분간만큼 기쁜 시간을 산 적이 없었다.」

「それより數日を過ぎ既に春琴も床を離れ起きてゐるやうになる何詩繡帶を取り除けても差支ない状態に迄治愈した時分或る朝早佐助は女中部室から下女の使ふ鏡臺と縫針とを密かに持つて來て寢牀の

上に端座し鏡を見ながら我眼の中へ針を突き刺したら眼が見えぬやうになると云ふ智識があつた譯はない成るべく苦痛少ない手輕な方法で盲目にならうと思ひ試みに針を以えて左の黒眼を突いてみた黒眼を狙つて突き入れるのはむづかしいやうだけれども眼の所は堅くて針が這入らないが黒眼は柔かい二三度突くと巧い工合につぶと二分程這入つたと思つたら忽ち眼球が一面に白濁し視力が失せて行くのが分つた出血も發熱もなかつた痛みも殆ど感じなかつた(略)程經て春琴が起出でた頃手ぐりしながら奥の間に行きお醫師様私はめしいになりました。もう一生涯お顔お見ることはござりませぬ彼女の前に額づいて云つた。佐助,そてはほんとうか、と春琴は一語そ發て長り間默然と沈思してゐた佐助は此の世に生れてから後にも先にも此の沈黙の數分間程楽しい時を生きることがなつた。」³⁹⁾



다니자키는 『春琴抄』에서 <마조히즘>의 심리를 잘 표현하여 문학의 절정을 이루고, 만년에 이르러서는 『鍵』를 통하여 <마조히즘>을 자신의 문학에 진정으로 정착시켰다. 중년 부부의 성을 심리적으로 다룬 『鍵』은 성애의 대상에게 살해당하고 싶은 <마조히즘>을 그렸다. 남편의 <마조히즘>과 아내의 <새디즘이> 역전하는 것을 두 사람의 일기를 통해 성의 극치의 세계로 독자를 끌고 간다.

「마지막까지. (생략) 다음날에 혼란에 빠져 곤란하게 할 마음도 있었다.」

「最後マデ, (略)翌日二陥レテ困ラセテヤレトイフ氣モアツタ。」

40)

39) 谷崎潤一郎, 「春琴抄」, 『全集38』, 筑摩書房, 1961, p.344

이상과 같이, 다니자키는 처녀작 『刺靑』에서 『七十九歳の春』에 이르기까지 몽유적인 구도와 완벽한 문장과 다양한 서술형체로써 여성미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유년시대의 성장과정과 아름다운 어머니의 영향이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은 다니자키 문학의 영원한 여성미의 조형의 원천이다. 따라서 여성숭배계통의 작품에 그려져 있는 여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轉身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남성 스스로 굴복적으로 헌신을 다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니자키 문학이 일관하여 그리고 있는 <마조히즘>이라고 할 수 있다.



40) 谷崎潤一郎, 「鍵」, 『谷崎潤一郎大系31』, 筑摩書房, 1970년

IV. 결 론

다니자키는 병적인 관능미와 특이한 여성미의 추구,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숭배로 퇴폐적 향락과 탐미적 경향을 유감 없이 표현하여 50 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일관된 <여성상>을 추구하여 탐미적 경향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일본근대문학에서 탐미주의의 주도권을 다니자키가 갖게 됨에 따라, 남성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 세계로 이관하게 되고, 요염한 여성의 자태에 순순히 굴복하고 숭배하는 여성상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다니자키는 여성을 단순히 육체적 본능이나 감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여성상>을 설정하여 그에 적합한 여성만을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니자키는 1910年 처녀작 『刺靑』를 가지고 문단에 등장하여, 1965년 『七十九歳の春』의 절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여성미를 찬미하는 <여성숭배>의 세계를 추구하였다. 바꿔 말하면 작가가 추구한 이상적 <여성상>은 변함 없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문학세계에는 여성이, 특히 아름다운 모성이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니자키 문학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다니자키의 성장과정과 아름다운 <어머니>가 다니자키 문학의 본질에 미친 환경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다니자키 문학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다니자키가 태어나 자란 동경 니혼바시는 그의 수많은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다니자키의 정신형성에, 특히 여성숭배사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다니자키의 아름다운 <어머니>는 그의 문학의 모티브를 이루고 있다. 다니자키에 있어 <어머니>는 유소년 시기에 보았던, 젊고 아름다운 <영원한 여성>으로써 늘 존재해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모친사상계열의 작품 『母を恋ふる記』, 『吉野葛』, 『小將滋幹の母』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작품 속의 어머니는 항상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로써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다니자키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름다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두 사람만의 세계를 간직하고자 하는 그리움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함께 다니자키 문학의 상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발-페티시즘>이다. <발-페티시즘>도 유소년기에 본 어머니의 희고 작은, 아름다운 발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다니자키 문학에 있어서 여성의 발은, 독립적인 자태와 표정을 가지고 여성과 代替하여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주인공은 남자주인공 위에 군림하고 있다. 다니자키는 이와 같은 여성숭배의 작품을 쓰면서 특히 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이런 여성숭배 정신은 처녀작 『刺青』, 중기의 『痴人の愛』로 대표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헌신을 다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남성의 <마조히즘>이다.

다니자키는 <마조히즘>감각을 통해서 주로 남성들의 문제, 즉 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편안히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남성들의 존재에 빛을 던져 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니자키의 문학세계는 독특한 <마조히즘>을 근본으로 해서 형성된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다니자키의 문학세계의 중심에 놓고, 영원한 여성의 미를 그의 독특한 필지와 환상적인 구도와 기교로써 마음껏 묘사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자키는 오로지 아름다운 여성의 감성미를 추구하여, 영원한 여성으로의 숭배를 일생동안 추구해온 작가이다. 따라서 다니자키 문학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유소시기의 성장과정과 모친사모, <마조히즘> <페티시즘>에 의한 여성숭배라고 할 수 있다.



参 考 文 献

【텍스트】

谷崎潤一郎, 『谷崎潤一郎全集』, 筑摩書房

1. 韓国文献

【單行本】

다니자키 중이치로 (김 춘 미 저),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다니자키 문학에 나타난 어머니의 의미 (김 소 연 저), 동덕여자대학교, 1994.

谷崎潤一郎 研究 (김 춘 미 著),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谷崎潤一郎 『母を恋ふる記』論 (吳 順 瑛 著), 성심여대 출판부, 1998.

朴洋根, 『谷崎潤一郎研究』, 日本学報 第6輯, 韓国日本学会, 1978.

_____, 『刺青の意味』, 日本学報 8, 韓国日本学会, 1980.

金益達, 세계백과대사전 제6권, 學園社, 1968.

吳昇禹, 谷崎潤一郎의 마조히즘적 여성관, 돈보스꼬예술학교백운논총, 1995.

_____, 『刺青』論, 日本文学の伝統と創造.

_____, 谷崎潤一郎 『母を恋ふる記』論.

金德俊, 『鍵』にみられる谷崎のマゾヒズム, 外国語研究 3, 聖心外国語專門大学,
1993.

김영옥, 연출가와 여배우; 谷崎潤一郎 『痴人の 사랑』론, 1999.

김봉택교수정년기념 日本学論, 博而精, 1999.

【論文】

- 金竜紀, 「谷崎潤一郎の『刺青』考察, 日本文化学報 6, 1999.
- _____, 『谷崎潤一郎의 생애와 작품』, 韓国日本学協會, 2001
- 西京大論文集 21, 谷崎潤一郎; 「痴人の愛」をめぐって, 國際大論文集 13, 1985.
- 李演淑, 谷崎文学に描かれた<女性美>に関する一考察, 성신여자대학교, 1993.
- 河昌容, 谷崎潤一郎의 女性觀에 관한 考察, 건국대학교1999.

2. 日本文献

【単行本】

- 三好行雄・竹盛天雄, 『谷崎潤一郎論』, 有斐閣, 1977.
- 三好行雄編, 『谷崎潤一郎集』, 1980.
- 笠原伸夫 『谷崎潤一郎論』 1982.
- 山内祥史, 『谷崎潤一郎編』 第1巻・第5巻, 筑摩書房, 1992.
- 山崎富栄, 『谷崎潤一郎の女性世界』, 女性文庫, 1995.

【論文・雑誌】

- 野口武彦, 『谷崎潤一郎論』, 中央公論社, 1973.
- _____, 『近代文学・作家とその世界 I』, 朝日新聞社, 1975.
- 「卒業論文のための作家論と作品論」, 『国文学解釈鑑賞別冊』, 至文堂, 1995.
-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 『日本文学研究資料書』, 有精堂, 1972.
- 千葉俊二編, 「谷崎潤一郎」, 『鑑賞日本現代文学⑧』, 角川書店, 1978.
- 「谷崎潤一郎とマゾヒズム」, 『国文学』, 学灯社, 1978.8
- 小泉浩一郎, 「谷崎潤一郎の思想」, 『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2001.3

細江光, 『谷崎潤一郎・変貌の論理』, 近代文学を問い直す, 2001.3

鑑賞 日本現代文学 제8권 谷崎潤一郎, 角川書店, 1975.12

近代文学・作家とその世界 I, 朝日新聞社, 1982.5

現代日本文学全集 38 谷崎潤一郎(-), 筑摩書房

日本文学全史 5近代, 学灯社, 1982.3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谷崎潤一郎, 有精堂, 1972.10

『谷崎潤一郎いま問い直す』 『国文学 解釈と鑑賞』, 学灯社, 1998.5



《Abstract》

The worship of Women appeared in <Danizaki junichiro> literature

Hyun, Mi-jae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Tae-guk

Danizaki, starting his career as a writer in 1910, worked hard on writing books about the beauty of woman until he finished her job in 1965. He expressed the beauty of woman on his books and focused on woman as being mother so, I would like to get the environment surrounding his during his childhood, first. He was born in Nihonbasi, Dong kyung which was the major background on most of his book and influenced by his grandfather a lot especially in forming his stat of mind. In addition, he thought of his mother as being young, beautiful and wise in his unconsciousness. Therefore, on most of her books, he wrote about woman supposing that woman is beautiful, wise, independent and superior to man just like him mother. For example, he pursued beautiful woman, being superior to man, on most of his books in his early career, like 'munsin' and 'the love of chi-in'. And he also focused on the value of beauty when writing books.

The world Danizaki's literature was formed in the basic of 'Fetishism' and 'Masochism'. In his book, Danizaki put women in the middle of hi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literature and described women as eternal beauty with his own techniques.

In addition, he is a writer who pursued the emotional beauty of women and the worship of women. Therefore, the worship of women is based on all of his books. I think the main reason why he chose women as a subject of most of his book is that he was influenced by his childhood, especially his mother.

After all, Danizaki constantly wrote about 'the worship of woman', as the most common subject on his books, expressing the beauty of woman emotionally with fantastic techniques.

